

1. 논술은 어떤 글인가?

① 자신의 '의견'을 적는 글

자신의 의견을 조리 있게 말한다는 것이 논술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적어도 '의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무슨 말인가를 해야 하는데 할 말이 있을 때와 없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을 때는 그걸 어떻게 엮어서 말할까 하는 것을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말이 술술 나올 때가 많지요? 그런데 말하고자 하는 바가 없을 때를 생각해 보면 우선 무엇을 말해야 하나를 고민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말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지요? 논술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가장 큰 까닭은 바로 의견이 없다는 데에 있습니다.

앞서서 밝혔듯이 글의 갈래를 말할 때는 논설문, 시험의 형식으로 논설문을 쓰게 하는 것은 논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두 가지가 엄밀하게 같은 것은 아닙니다.

논설문은 남이 자기 글을 읽고 이렇게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다, 또는 이렇게 행동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목적으로 씁니다. 설득하기 위한 것이지요.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거나 행동해 주기를 원하는 걸까요? 그것은 자기 생활에서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일,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일, 고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일이 되겠지요. 말하고자 하는 바의 기본(=의견)이 자기 생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논술은 시험을 치르는 형식으로 쓰는 글이기 때문에 시험에서 요구하는 말할 거리를 찾는 것입니다. 시험이 성립이 되려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 근거'가 있어야 하겠지요. 그런데 논설문에서처럼 '생활하면서 부당하다고 느끼는 것에 대해 의견을 쓰라'는 식으로 주문을 하게 된다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겠지요.

그래서 대부분의 논술 시험은 지문과 발문 안에서 '의견'을 찾아내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논술 시험문제를 보면 거의 지문이 한두 개, 요즈음은 서너 개까지 제시됩니다. 그 지문에서 어떤 문제나 출제자가 요구하는 그 무엇을 찾아내서 거기에 대한 자기 의견을 풀어내는 것입니다.

논설문은 주장 거리를 자기 생활에서 찾는다면 논술은 제시된 상황에서 주장거리를 찾는다는 점에서 이 둘은 출발점은 좀 다른 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② 흔히 말하는 독서 과정과 일치하는 것

대부분의 논술 시험은 제시문을 읽고, 그것이 요구하는 답을 쓰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논술 시험의 여러 가지 형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것은 어떤 상황에 적절히 반응할 수 있는가를 묻는 것이라고 바꾸어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독서의 과정과 일치합니다. 올바른 독서란 글의 내용이나 글쓴이의 주장을 그저 맹목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관과 현실을 배경으로 판단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것을 비판적 독서 방법이라고 합니다. 어떤 글을 읽고 나서(상황) '그 글이 마음에 든다. 왜?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혹은 '이러저러한 까닭으로 그 글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는 점을 따지고 밝히는 것(반응)이지요. 논술 시험이 등장하면서 독서 교육이 강조된 것은 바로 이러한 점 때문입니다.

③ 내용을 알아야 의견도 세울 수 있지요

많은 학생들이 논술을 어려워했다고 합니다. 그 까닭은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의견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말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아듣지 못하니 이야기 거리를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¹⁾ 글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글을 잘 쓰느냐 못 쓰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할 말(의견)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가 잘 아는 문제에 대해서는 논리적 구성이니 이런 것 생각하지 않고도 말을 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가?'하는 식으로 평소에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일이라면 당연히 할 말을 찾기 어려운 것이지요. 할 말이 없으니 논리도 세울 수 없습니다.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쓴다면 어떻게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풀어나가야 할지는 스스로 깨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논리'는 글을 쓰는 도구이지 논리로만 글을 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용이 없는데 형식만 그럴 듯하게 갖추어 놓는다고 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글의 형식만을 강조하는 글쓰기, 논술지도는 아주 잘못된 방법입니다.

논술시험도 그 글이 삼단논법으로만 잘 규격화되어 있느냐 아니냐로 그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쓰고자 하는 의견이 무엇인지 그것이 제대로 표현되어 있는 것인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④ 글을 정확하게 읽는 능력이 필수

2000학년도 한양대의 논술 문제를 예를 들어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문제는 새 천 년에 인류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이다.

글 (가)와 (나)를 관련지어 환경 문제가 대두되게 된 원인을 분석하고, 글 (다)에서 시사점을 찾아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논술하시오.

이 글을 읽어 보면 제시문 (가)와 (나)에 환경문제의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와 (나)를 잘 읽어보아서 거기에 드러나 있는 환경문제의 원인을 먼저 찾아내야 하겠지요? 자기의 머릿속에 있는 온갖 환경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이미 제시되어 있는 내용 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 다음 (다)에서 보여주는(시사하는) 환경문제의 해결 방안이 무엇인가를 잘 읽어서 찾아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근거해서 해결 방안을 써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제시문을 읽고도 거기에 들어 있는 원인을 찾아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대학 입시에서 보여주는 제시문들이 이제껏 학생들이 읽어 왔던 글 보다는 훨씬 수준이 높다는 점도 그 원인의 하나이지만 그보다는 글을 꼼꼼히 읽어 내는 훈련이 되어 있지 못한데 더 큰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글을 정확하게 읽어 내야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는지 알 수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자기 의견도 말할 수(쓸 수) 있

1) 특히 각 대학의 논술 문제가 너무 어렵게 출제되고 있는 점도 한 몫을 단단히 합니다. 평소의 읽던 제시문의 수준 보다 갑자기 어려워진 제시문을 보면서 학생들이 당황한 경우가 많았고, 얼른 읽어 잘 알 수 없는 어려운 문장으로 논제를 제시한 것도 그 원인이 되었다고 봅니다.

는 것인데 말이지요. 논리? 그것은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또 글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평소에 거기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자기가 잘 알고 있는 일이라면) 논리에 대해서 크게 마음 쓰지 않아도 조리 있는 글을 쓸 수 있습니다.

논술 시험이란 글을 정확히 읽고 그에 대해 나름의 평가를 내려서 자신의 의견을 세운 뒤 그것을 효과적인 방법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을 말합니다.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첫째, 글을 정확히 읽는 능력

둘째, 그것에 대해 나름대로 정확히 평가를 내릴 수 있는 능력

셋째, 그것을 표현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논술이 무엇인지 조금 보이기 시작하지요?

그런데 이런 글을 써야 하는 아이들은 고등학생들입니다. 초등학생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학교 교육에서 필요한 정도의 글쓰기 능력, 논술 시험이 요구하는 정도의 글쓰기 능력은 누구나 훈련하면 갖출 수 있습니다. 초등 중등에서 고등에서 그 단계에 맞게 차근차근 천천히 공부하면 됩니다. 조급해 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 글쓰기 교육은 초, 중, 고등이 체계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못한 것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중등은 중등에 맞는, 고등은 고등에 맞는 글쓰기 지도 체계를 갖추고 지도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중 고등에서는 글쓰기 공부를 거의 하지 않는, 아니 못하는 상황²⁾이지요. 그러다가 논술 시험 시기가 다가오면 고액을 들여 과외를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니 정말 큰 문제이지요? 그러다 보니 마음이 바쁘고 조급해져서 중·고등에서 가르쳐야 할 것들을 마구 초등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교육현실에서 빨리 시정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논술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진 것은 아무래도 대학입시 때문입니다. 대학 입시에서 논술이 없었다면 이렇게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했을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시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니고 논술 역시 시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는 끊임없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어떤 배우자를 선택할 것인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시사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질 것인가... 그런 갈등과 고민을 해결하는 과정 그 자체와 논술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지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표현하는 일이 그러합니다.

단순히 시험을 잘 보려고 어떤 체험을 하거나 책을 읽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느끼고 가져야 할 지식, 올바른 정서, 가치관의 확립 이런 것이 더 큰 목적이지요.

많은 부모님들이 마음이 조급한 가장 큰 까닭도 지금 바로 눈앞에 있는 현상(시험)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멀리 길게 보면 지금 아이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그 문제가 사실 아무 것도 아닌 때가 참 많거든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오직 눈앞에 있는 성적 올리거나 시

2) 물론 중·고등 현장에서 글쓰기 교육에 관심을 갖고 올바른 글쓰기 지도를 꾸준히 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글쓰기교육의 위계를 정립하는 일은 개인의 신념이나 취향에만 맡길 부분은 아닙니다. 또 중고등학생이 되었다고 자기 삶에서 동떨어진 관념적인 글을 주로 쓰게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요즘은 대학에서도 학생들의 글쓰기 능력이 아주 낮은 까닭 가운데 하나를 너무 고답적이고 관념적인 글을 쓰게 하는 데서 있다고 보고, '자기 삶이 드러나는 글쓰기' 같은 과목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힘 잘 보기가 최종의 목적이 아니라, 자기 삶을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더욱 지혜롭게 살아가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겠지요. 논술도 그렇게 다가가면 다 되는 것입니다.

⑤ 논술을 좀더 쉽게 재미있게

‘논술’을 사전에서 찾아보니 ‘의견을 논하여 말함’으로 되어 있습니다.(동아 새국어사전) 그런데 이 뜻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들어오지 않아요. 좀더 쉽게 논술이란 ‘자기의견을 쓰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자기의견을 쓰는 일이 특별히 ‘논술’이라는 쓰기교육 활동 속에 묶여 있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의견을 말하는 것은 모든 교과 교육 활동 속에 보편으로 들어 있는 활동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교과 교육 활동은 ‘논술 능력’의 함양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이것은 논술이 단순한 ‘문장 기술’이 아니라 ‘지식을 정리하고 부리는 기술’ 또는 ‘논리적 사고력’에 해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교과 활동에서 학생들이 자기 의견을 말하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풀어가는 과정을 중요시 한다면 논술에 대한 기본 토양은 잘 갖추어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생활 속에서 훈련이 먼저 되어야.

이런 교육이 되려면 아이들이 자기 의견을 눈치 보지 않고 말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논술 공부도 결국은 아이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고 의견을 무시하지 않는 곳에서 출발해야 하는 것이에요. 평소에 아이들이 무슨 말이라도 하려고 하면 “네가 뭘 안다고...” “어른들이 알아서 할일이니 너는 공부나 해.” 하는 식으로 억누르지는 않는지요?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나 아직도 우리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토론 시간’이 되었다고 자기 생각을 발표하라고 하니 아이들은 할 말을 찾지 못하거나 아니면 자꾸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하는 일이 많습니다. 집에서는 마구 욕박질러서 말도 못하게 해놓고 글쓰기 독서 공부하는 곳에서만 논리적으로 말하고 생각하러니요? 아이도 어른도 답답할 노릇이지요. 열린 분위기에서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자란 아이가 논술도 잘 하게 됩니다.

♣ 할 말을 또렷하게, 형식이라는 옷은 나중에 입히자.

실제 현장에서 보면 논술문의 겉으로 드러난 형식인 서론-본론-결론, 중심 문단과 보조 문단, 주제문의 위치 같은 것들을 강조하는 지도에 치우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논술문은 내용과 형식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글이지만 그 가운데서는 내용이 더 우선입니다. 내용은 곧 할 말이지요. 자기가 할 말을 또렷하게 정하지 않고 형식만 맞추어 글을 쓰면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는 글이 되고 맙니다.

글의 형식이나 글을 쓰는 기법보다는 ‘폭 넓게 생각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떼면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말이 주어진 주제에 합당한 것인지, 또 자기 의견을 말하기 위해서 든 근거가 적절한 것인지, 어떤 대상에 대한 비판이 올바르게 되어 있는지 따위를 알아보는 것 말입니다. 이 부분이 논술의 핵심입니다. 그런 다음 형식이라는 옷을 입히는 지도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 논술이라고 ‘나’를 아주 감추는 것은 아니다.

질서를 잘 지키자

차주영(5학년)

우리는 어디서나 질서를 잘 지켜야 한다. 그래야 혼잡하지 않고, 다치는 사람이 없게 된다. 특히 여러 사람이 함께 오고가는 복도 층계에서는 질서를 잘 지켜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척 혼잡해지고, 다치는 사람도 나오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복도 층계에서 질서를 지킬 수 있을까? 그 방법들을 생각해 보자.

첫째, 걸을 때는 항상 왼쪽으로 걷는다. 우리는 걸을 때 항상 왼쪽으로 걷는 것을 규칙으로 삼고 있다. 만일 내가 오른쪽으로 걷는다면 이쪽으로 오는 사람들과 부딪쳐서 무척 혼잡스럽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다칠 위험도 있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약속된 대로 왼쪽으로 걸어야 한다.

둘째, 뛰지 말고 천천히 걸어간다. 뛰어가면 먼지가 날 뿐만 아니라, 부딪쳐서 사고가 날 위험이 있다. 걸어갈 때는 바른 자세로 천천히 걷는 것이 좋다.

셋째, 줄을 서서 걷는다.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차례를 지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규칙이다. 앞에서 걷는 사람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줄을 서서 걸을 때 복도 층계에서의 질서가 잡혀서 모든 사람이 편하게 걸을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복도 층계에서 걸을 때 왼쪽으로 줄을 서서 천천히 걸어가야 한다. 그래야만 그 곳에서의 질서가 잡혀 혼잡을 피하고, 부딪쳐 부상당하는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 글은 ‘맞는 말’을 하고 있는데 글을 읽는 재미나 맛이 없는 글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글쓴이(여기서는 논술적 자아)가 너무 드러나지 않고 누구나 하는 말만 늘어놓았기 때문입니다.

수능부정 행위를 한 사람은 어떤 벌을 주면 좋을까?

이승재(외부초등 5학년)

6일 오후 수능시험 부정 행위가 있었다. 부정행위 방법은 통신 기기를 이용했다는 것이다. 이 사람들은 벌을 주는 것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았다.

먼저 부정행위를 한 사람을 모두 불러모은다.

둘째, 이 사람들을 수능을 10년간 못 보게 한다. 왜 10년이라고 생각하냐면 10년이 지나고 나서는 기억력이 떨어져서 공부를 어렵게 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 10년이 지나고 나서 감독관을 한 명씩 붙여서 공부를 시킨다. 그러고 나서 언제든지 자신이 원할 때 수능을 시켜준다. 이때 또 그런 일을 저지르면 1. 군대에서 3년간 극기 훈련을 시킨다. 2. 수능을 못 보게 한다. 3. 감옥 생활을 3년간 시킨다. 4. 삼 년간 목에다 “나 좀 개 취급해주세요” 하고 쓴 것을 걸고 다닌다. 이것은 보기이다. 이중에서 한 가지를 고른다.

더 심한 벌을 줄 수 없는 게 한번 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이어서이다.

(2004.12.7)

자칫 장난스럽게 들릴지 모르는 이야기지만 잘 살펴보면 이 아이는 나름대로 어떤 문제에 대한 자기식의 해결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해결이라고 하면 어떤 정답을 제시해야 하는 것으로 착각하기 쉬운데요, 정답은 전문가들이 마련해 놓고 있는 것이겠지요. 글 쓰는 사람은 자기 의견을 말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밝혀 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수능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들을 처벌하는 방법으로 ‘10년간 수능시험을 못 보게 해야 한다.’는 것이 이 아이의 생각입니다. ‘10년이 지나고 나서는 기억력이 달려서 공부를 어렵게 해야 할 것’이므로 그것이 벌칙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마지막 문장을 표준어법으로 따져보면 김고 더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더 심한 벌을 줄 수 없는 게 한번 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이어서이다.’는 그 아이만의 독특한 문체입니다. 객관적인 문장이 아니라고 고치려고 든다면 아이를 잘 알지 못하는 어른의 욕심입니다. 아이다운 말에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 아이 마음이 잘 느껴집니다. 초등학생들의 글에서 ‘논술’이라고 너무 매끈한 문장으로 고쳐주고 다듬어 주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그 아이의 글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번에 그렇게 고쳐놓는다고 다음번에 금방 어른이 기대하는 대로 쓰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글은 그 ‘사람만큼’ 쓸 수밖에 없고 그렇게 쓰는 것이 당연합니다. 아이는 자랄 것이고, 이렇게 쓰면서 차츰 알맞은 어휘의 선택이라든가 형식을 좀더 갖추는 문제 따위를 배워 가면 되겠지요.

논술은 논리를 따지는 객관의 글이지만 동시에 한 개인의 세계관이 반영되는 주관의 면모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주관성이 어떤 근거로 설득력을 확보하는지가 중요한 것이겠지요. 그러니까 논술이라고 해서 지나치게 개성 없는 글쓰기로 치닫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논제의 성격에 따라 글쓴이가 개입할 수 있는 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평범한 논술이 아닌 ‘아주 잘 쓴 논술’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나’를 드러내는 것이 관건이 됩니다.

♣ 생활은 논술의 연속

논술이 문제 해결 과정의 하나로 본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논술’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비가 오는데 우산이 없다면 이것은 ‘문제 상황’이 되는 것이고 길가는 사람에게 부탁해서 같이 쓰고 간다면 그것을 ‘해결’한 것이 되겠지요. 문제와 문제 해결이라는 말을 이렇게 생활 가운데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생활은 끊임없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논술은 문제를 파악하고 그것의 해결 방안을 언어로 펼쳐 보이는 것입니다. 언어와 사고는 서로 팽팽한 영향 관계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말로 생각하고, 생각한 만큼 글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아는 말로, 아는 만큼 쓰는 것이 즐거운 논술 쓰기의 지름길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아는 것을 넓히는 것이 논술을 잘 하는 비결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⑥ ‘논술’이라는 말이 빚어낸 문화현상.

오늘날 ‘논술’이라는 말은 그 의미장이 아주 많이 확장되어 있습니다. ‘백인백색의 정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논술’이 무슨 도깨비 방망이라고 되는 양 ‘논술만 잘 하면 대학 간다.’는 식으로 떠들어 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맞지

않습니다. ‘논술만’ 잘하다니요? 요즘 대학입시 논술은 한글 지문과 영문 지문을 같이 보여 주면서 이 글들에 나타난 공통의 문제를 뽑아내라는 식의 문제도 출제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영어실력도 뒷받침 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 논술 시험을 보는 대학에 가려면 그 대학에 원서를 낼 만큼 학업 성적도 뒷받침되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면에서 보면 ‘논술만 잘하면 대학 간다.’는 식의 말은 앞뒤가 너무 맞지 않는 말입니다.

이런 지경에 이르다 보니 어디에나 논술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으면 ‘장사’가 안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심지어는 ‘유머 논술’, ‘인형 만들기를 통해서 하는 논술 교육’ ‘NIE 논술’ 하는 신조어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정리해 보면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논술’이라는 말이

① 글쓰기 전반을 지도 하면서 논술이라는 말로 대체해서 지칭하는 경우 ② 그 진행과정이나 비슷한 독후활동을 논술이라고 말하는 경우 ③ 어떤 가상의 문제 상황을 조리 있게 풀어나가는 공부를 하면서 논술이라고 말하는 경우 ④ 실제 대학입시 준비를 위한 논술 공부를 하면서 논술이라고 하는 경우 ⑤ 삶이 곧 논술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같이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사회 현상을 길게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단어의 정의를 분명히 아는 것은 무슨 일을 해 나갈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논술이 무엇인가, 그 말이 어떤 문화 현상을 빚고 있으며 바람직한 방향은 어떤 것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논술 공부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2. 논술시험은 왜 보는 걸까?

그렇다면 논술 시험은 왜 필요할까요? 특히 대학에서는 왜 논술시험을 보는 것일까요? 가장 기본이 되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논술은 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 학문 활동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학문을 한다는 것은 진리를 탐구하는 일이라고 하지요. 단순하게 진리 탐구에 그치지 않고 더 중요한 작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당화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대학에서는 논문의 형태로 공부한 것을 표현하게 됩니다. 논문은 근거를 대는 글입니다. 정당화하는 글이지요.

논술이 필요한 까닭, 두 번째로는 단순하게 학문 활동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합리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기 위한 훈련 과정으로써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일을 할 때 직무 수행의 기본 능력을 갖추는 과정이 바로 논술 훈련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에도 이제는 단순하게 지식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측정하는 하는 일이 중요한 문제로 등장했습니다.

논술 시험을 단순하게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도구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긴 인생에서 중요하고 기본적인 능력을 기르는 과정이라고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겠습니다.

3. 바람직한 논술 교육의 방향

논술 교육은 궁극으로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분별력 있게 생활하는 태도를 길러 나가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어요. 그것을 향해 가는 과정을 글로 나타내는 것이지요. 그저 남의 책을 읽고 어른들이 말하는 것, 가르쳐 주는 것을 정리하거나 적당하게 자기 생각이라고 하여 의견을 적는 글이 아니라 진정에서 우러난 자기 생각이나 의견을 쓰는 글이어야 합니다.

책읽기와 논술의 관계

어떤 상황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그것을 이치에 맞게 해결해나가려는 노력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의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책을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 분야의 책을 읽은 사람은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치에 맞게 생각을 전개할 수 있고, 이치에 맞게 글을 쓸 수도 있겠지요.

따라서 책을 읽을 때는

나는 왜 이 책을 읽어야 하는가 생각해 보기도 하고

이 책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을까를 예측해 보기도 하고

글쓴이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썼을까 상상하며 읽어보면서 책에 있는 내용을 더 확실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의 책부터 읽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가 남보다 잘 알거나 잘 하는 것이 있으면 말할거리가 생기는 법입니다. 그렇게 읽은 자료에서 스스로 논란거리를 보고 가까운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합니다. 논술을 떠나서 이런 공부가 참다운 공부가 아닐까요?

글쓰기와 논술

논술은 합당한 논거를 바탕으로 자기주장을 내세우는 글이기 때문에 정서표현의 글을 쓸 때하고는 다른 지적 능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실용적인 글쓰기와도 다릅니다. 실용적인 글쓰기는 그 글에서 제시한 문제 해결방법이 현실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논술은 '적용'의 단계까지 나아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적 논리가 얼마나 튼튼하고 타당한가를 들어보이면 되는 글입니다.

논리가 튼튼한 글을 쓰기 위해서는 일관성을 잃지 않으면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도록 글을 구성해야 하겠지요. 이렇게 해야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다른 사람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남에게 또렷하게 전달하는 힘은 살아가는데 중요한 능력이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논술 공부를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왜 논리적인 글을 못 쓰는가?

우선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힘이 부족하기(아직 자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고 자체를 논리적으로 해야 글도 논리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글에 대한 기본 지식이 부족하고 글을 정의 있게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능숙한

필자는 글은 매만질수록 윤기가 난다는 것을 잘 압니다. 글다듬기의 중요성을 알게 하고 제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 ① 평소에도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한 자기 생각을 가져볼 것
- ② 그런 생각을 조리 있게 말해 볼 것
- ③ 실제로 문장을 많이 써 볼 것
- ④ 문법 층위에서 글을 다듬기보다는 논리 중심으로 글을 다듬고 고칠 것

따위를 대안으로 들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논술 공부를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문장을 쓰기 위한 노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어렵고 무겁게 가르치는 논술

논술 공부는 ‘논리’ 공부입니다. 자기표현력 훈련이며 자기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교양을 쌓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깊게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공부입니다. 논술공부는 논리를 공부하는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또 어려운 말을 쓰는 것이 논술 공부가 아닙니다.

논술을 가르친다는 한 학습지의 문제입니다.

“한 아이가 웬일인지 밥을 먹지 않으려고 합니다. 엄마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해 주어도 먹기 싫다고 하네요. 이럴 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구조적인 사고능력을 발휘해서 엄마에게 좋은 방법을 알려주세요.”

초등학생들하고 공부하는 과정인데 구조적인 사고능력을 발휘해서 좋은 방법을 생각해 보라니 어떤 것이 구조적 사고능력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은 알까요? 그러면 교사가 그것을 설명 해주어야 할 것인데 어떻게 아이들이 알아듣기 쉽게 전달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마지막 문장 때문에 오히려 아이들의 사고의 흐름을 막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알지 못하는 말이 나오니 생각이 거기서 딱 멈추어 섰겠지요. 논술을 공부한다고 이렇게 어려운 말로 아이들을 괴롭히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학습지를 가르치는 선생님한테서 이런 전화가 왔습니다.

“학습지를 보면 거기에 있는 문제들이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도 같고, 새롭게 어떤 글을 쓰게 할 것도 같아요. 학습지 자체를 보면 잘 만들어진 것 같은데 실제 아이들하고 공부를 해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은 힘겨워하면서 좇아오고, 쓰는 글은 너무 한심한 수준이에요. 오히려 답만 빨리 달고 끝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선생님의 말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거리를 주고 있습니다. 잘 만든 것 같은데 공부하는 아이들이 힘겨워한다면 그것은 어른의 시각으로 볼 때 잘 만든 것이지 아이들을 너무 모르고 (혹은 너무 과대평가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 잘 못 된 것이지요.

글쓰기에 관한 한 어렵게 만들어진 교재에 흡족해 하는 학부모의 선택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아이가 빨리 논리적인 글을 쓸 수 있을 거라 막연히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른의 기대와는 달리 아이들은 글 쓰는 일을 어렵고 지겨운 일로 생각해서 더욱 멀리 달아나 버립니다.

또 ‘생각’을 중심으로 쓰는 글을 어린 아이들에게 많이 쓰게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일을 겪고 나서도 생각은 한 가지(예를 들면 재미있다)로 정리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생각으로 글을 쓰면 누구나 쓰는 글이 비슷해지고 글 쓰는 힘이 붙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쓰는 글이 한심한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깨닫지 못한 채, 자꾸자꾸 어렵게 문제를 만들고 그것을 아이들에게 풀어보고 글로 써보라고 하고 있으니 안타깝습니다. 근사해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재미있게 생각할 수 있는 생활 속의 밀접한 문제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쓰기를 가르친다는 것은 크게 본다면 사고를 훈련시키는 것을 뜻하며, 자신이 생각한 것을 글로써 효과적으로 남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의사를 말이나 글로 ‘분명히 표현하는 능력’을 길러 놓는 것은 어떤 사람이 살아가는데 대단히 큰 힘이 됩니다. 현대에서 사람들의 삶은 글쓰기와 뗄래야 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보고서나 업무상 의견 교환, 자신의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개발해 낸 것을 알리는 일... 거의 모든 경우 글쓰기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요령 있고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힘을 갖추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와 논술

그러면 이런 공부를 언제쯤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지금은 논술바람이 워낙 거세게 불어와서 학년과 관계없이 논술을 가르치려고 하는 일이 많지만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초등 5,6학년 이상은 되어야 해볼 만한 공부입니다. 저학년 아이들은 즐겁게 자기를 표현하는 글 쓰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주시십시오.

또 5,6학년이 되었으니 의무적으로 이런 공부를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선은 생활글 쓰기로 글과 친해지고 글 쓰는 힘을 좌악 길러 놓은 후 아이의 관심이 넓어지고 글도 차근차근 쓸 수 있을 때 그때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 시기는 아이에 따라 다릅니다.

어린이들과 논술 공부를 하려면 무엇보다도 그 나이나 관심 수준에 맞는 논란거리를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논술의 논제라고 하면 모두 책에서 읽은 지식이나 이론을 쓰도록 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지만 누구든지 자기 체험을 바탕으로 쉽게 자기 의견을 쓰면서 좋은 생각을 하게도 만드는 문제가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그 논제에 대해서 충분히 알게 한 뒤 글을 써도 써야 해야 할 것입니다. 논제만 던져 주고 글로 써봐라 해도 그 논제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으면 글을 쓸 수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 글을 쓴다고 해도 결국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을 나열하는 정도밖에 쓸 수 없습니다. 대상에 대해 충분히 아는 것이 글쓰기에 앞서는 일입니다.

생활 속에서 찾은 생각할 거리

다음은 생활 속에서 찾은 논제의 일부입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쓴 학생의 글도 소개합니다.

초등 고학년 정도에 맞는 논제 예시

요즘 우리 동네에서는 학교 오가는 길의 학생들에게 학원 같은 곳에서 나온 사람들이 여러 가지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기 생각을 써보세요.

잡상인들을 몰아내자!

외부 초등학교 5학년 이희재

요즘 어느 학교를 가도 속셈학원, 태권도, 검도, 책 주문 등 많은 잡상인들이 우리를 유혹한다. 많은 또래와 형, 동생들이 선물에 정신 팔려 전화번호를 가르쳐준다. 이런 점이 왜 나쁜가 지금 이야기 해보자.

첫째, 그 사람들이 전화번호를 물어봐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자꾸 전화가 온다. 한 번 가르쳐주면 몇 날 며칠을 전화한다. 내 동생도 어느 태권도에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었다. 어느 날 전화가 왔다. 내가 받았다.

“여기 ○○○ 태권도인데요. 승재 있나요?”

나는 깜짝 놀랐다. 그리고는 승재는 바꿔 주었다.

“아이, 아저씨! 전화하지 말랬잖아요!”

이렇게 통화할 때 엄마에게 일러서 엄마가 알아서 처리하셨다. 내가 이런 걸 벗어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다른 길로 가든가 다른 사람이 전화번호 말할 때 재빨리 도망치는 방법과 들은 척 만 척하며 그냥 걸어가는 게 제일 효과적이다.

둘째, 선물로 유혹해서 자기 학원에 오게 한다. 게임기, 강아지, 총, 그리고 그걸 3개나 고를 수 있고 맨 처음에 오는 사람은 선물 10개나 준다니 대부분이 다 넘어가게 된다. 이런 걸 이겨내는 것은 침을 삼키면 된다.

셋째, 이런 학원에서만 오는 게 아니다. 목걸이, 달고나 등도 있다. 이런 것은 돈 낭비다. 특히 돈 없는 할머니 분들이 하신다. 특히 달고나!! 다 모양대로 오려내면 돈을 준다는 데 돈만 쓰고 완벽히 굶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당연히 낭비였다. 달고나는 너무 달아서 못 먹겠는데 왜 맛있다고 먹는지. 그리고 솜사탕! 그건 대부분의 아이들이 먹었다. 200원짜리 쭈쭈봉이 더 맛있는데 먹으면 입가가 끈적해지는 걸 500원이나 내서 먹는지 모르겠다.

솜사탕, 달고나, 목걸이는 다 사라졌지만 학원 광고하는 사람들은 뒷 정문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다. 우리 학교에서 몰아냈으면 좋겠다. 학원에서 교사들이 열심히 하면 아줌마들에게 소문이 퍼져 아이들을 그 학원에 보낼 텐데 뭐 하러 선물을 사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우리는 절대 전화번호를 대지 않고 선물에 홀리지 않기 바란다. (2003/5/27)

중학생 정도에 맞는 논제 예시

사회봉사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갈수록 사람들의 봉사 정신이 부족해져서 학생들에게도 점수를 주어 봉사 활동을 하게 합니다. 이렇게 점수를 매기면서 봉사를 하게 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각자의 의견을 적어보세요.

점수로 매기는 봉사제도 괜찮다.

김선영(상명여중 2학년)

봉사란, 마음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와서 남을 돕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요즘에는 봉사를 하는 사람이 드물

다. 물론, 자원봉사자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 수가 아주 적다. 또 학교에서는 배우고 있는 학생들에게, 점수를 걸고 강제로 봉사활동을 시킨다. 이런 제도에 반발을 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봉사를 강제로 시켜서 하는 것이라면, 봉사의 본래 의미와 다르기 때문에 아무 소용도 없는데 어떻게 점수를 매길 수 있냐는 것이다.

하지만 강제로라도 봉사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주의적이면 이런 제도까지 생겼을까? 물론, 학교에서 점수를 받으려고 하는 봉사활동도 다 개인을 위한 이기심에서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말이다. 어쨌든 결론은 봉사활동을 '한다'가 아닌가?

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만들면 그 나름대로의 장점도 또 있는 거다. 평생 돌아보지도 않을지도 모르는 곳에 강제로라도 가게 해서 봉사활동을 시키니 다양한 경험도 되고 내가 일반적으로 알기만 했던 사실들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현실을 볼 수 있게 한다. 학교라는 작은 사회에서 발을 내딛게 해서 시야를 넓혀주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돌아볼 줄 알게 해주는 여유를 주기도 한다.

처음에는 타인에 의한 강제봉사였지만 하고 나면 보람이 느껴져서 나중에는 한번이라도 자발적으로 봉사를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시킨 일이라도 아주 성가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나는 학교에서 강제로라도 봉사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